

#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모성 정체성의 수행 양상

-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바람의 넋」을 중심으로 -

박지영\*

## 〈차 례〉

1. 들어가며: 전쟁과 모성
2. 수행의 일시적 균열과 환원의 전쟁 모성
3. 전쟁의 기억으로 인한 우울증적 모성
4. 나가며: 수행자에서 주체자가 되기까지

## [국문초록]

이 글은 오정희의 전쟁 3부작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바람의 넋」에서 모성 정체성의 수행이 어떤 양상으로 재현되는지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작품은 각각 전쟁의 상황, 전쟁이 끝난 후의 상황, 전쟁으로부터 멀리 지나왔으나 그 기억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나 작가는 전쟁이라는 강렬한 경험과 기억을 통해 '여성'이 역사적이고 사회적 존재라는 자각을 갖게 되는 과정을 치밀하게 그리고 있다. 여성의 정체성이 역사의 물결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되고 구조화된다는 것을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원용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가변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젠더적 정체성, 그중에서도 '모성'에 주목하여 전쟁이라는 재난의 상황과 모성이 만났을 때 이 정체성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 질문하였다.

전쟁의 특수성과 규범·관습의 반복이 충돌할 경우, 반복성은 기존의 것을 인용하며 끊임 없이 재생산될 것인가의 문제를 「유년의 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쟁이 휩쓸고 간 국가가 새롭게 내거는 이념에 모성은 또다시 어떤 방식으로 동원되어 수행되는지는 「중국인 거리」를 통해 논의해 보고, 불가항력과도 같은 전쟁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안고 있는 여성 인

\* 경북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센터 강사

물이 1980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양상의 섹슈얼리티가 만들어지고 통제되는지를 「바람의 뉘」을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오정희가 그리고 있는 모성의 수행이 지배 권력에 반(反)한다는 것과 지배 담론을 횡단하는 시각으로 함께 읽히는 이유를, 주체의 저항이 권력 내부에 있다는 버틀러의 행위주체성에 대한 이론으로 해명하였다. 전쟁의 폭력을 겪은 여성 인물이 수행자에서 주체자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까닭은, 실령 그것이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여성 스스로가 제도와 권력을 향한 저항과 전복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오정희, 모성, 전쟁, 주디스 버틀러, 수행성, 권력, 우울증, 행위주체성

## 1. 들어가며: 전쟁과 모성

오정희 작가는 2006년 출간한 산문집 『내 마음의 무늬』에서 전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는 전쟁의 현장을 직접 보거나 겪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대한 최초의 기억이 전쟁과 관련 있으며 휴전 이후 황폐하고 척박한 전후의 분위기가 자신의 성장기를 형성하고 지배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문학적 감수성이나 작가로서의 내면적 출발점을 전쟁”<sup>1)</sup>에 두었음을 고백할 만큼, 내면에 드리워진 전쟁이라는 그림자는 오정희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절망과 불안, 비애의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오정희 문학을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전쟁이 낳은 상처와 슬픔에 직면하는 것이고 절규하는 이들의 고통과 물음에 대한 답을 해갈하는 분투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오정희의 작가 의식과 정서가 강렬하게 각인된 ‘전쟁 3부작’<sup>2)</sup>을

1) 오정희, 「내 안에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 『내 마음의 무늬』, 황금부엉이, 2006, 185쪽.  
 2)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는 피난지, 전후 사회가 소설의 배경임이 명백하기에 전쟁 소설, 혹은 전쟁 체험 서사로 볼 수 있고 축적된 연구도 상당하다. 「바람의 뉘」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며 중산층 아내의 권태로운 삶이 표면에 제시된 작품으로, 전쟁과 관련된 서사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주인공의 알 수 없는 행위와 의식에 대한 원인이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해명되고 있는 만큼, 「바람의 뉘」은 전쟁과 깊은 관련을 지닌 작품이다. 정재립, 심진경, 김미영의 연구가 「바람의 뉘」을 6·25의 상흔과 결부지어 논의하고 있으며, 문학치료 텍스트로 「바람의 뉘」의 가능성을 타진한 박지혜의 연구에서는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에 등장했던 어린 화자의 “병리적 트라우마의 양상이 성인 주체”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바람의 뉘」을 가져 오고 있다. 이렇듯 세 작품의 연결 고리가 모두 ‘전쟁’과 관련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소설 발표 시기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전쟁 3부작’으로 명명하였다. 정재립, 「기억의 회복과 여성 정체성」,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2005, 379~399쪽; 심진경, 「원초적 장면과 여성적 글쓰기의 기원: 오정희의 「바람의 뉘」 재론」, 『인문학논총』 37,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의 제재로 삼았다. 「유년의 뜰」(1980), 「중국인 거리」(1979), 「바람의 뉘」(1982)이 그것인데, 이는 각각 전쟁의 상황, 전쟁이 끝난 직후의 상황, 전쟁으로부터 멀리 지나왔으나 그 기억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나 작가는 전쟁이라는 강렬한 경험과 기억을 통해 ‘여성’이 역사적이고 사회적 존재라는 자각을 갖게 되는 과정을 치밀하게 그리고 있다. 심진경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전쟁을 통과할 때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분석한 바 있다. 국가와 사회의 규범과 보편적 규율에 언제나 여성, 더 정확히는 여성의 성(性)이 동원되고, 특히 전쟁과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여성의 순결과 정조, 모성이 강조”<sup>3)</sup>된다는 것이다. 여성이 지닌 젠더적 정체성이 국가와 사회의 원활한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더욱 극대화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종의 텅 빈 기표”이자 “공백”<sup>4)</sup>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의 젠더 이론가 주디스 버틀러는, 여성이 ‘텅 빈 기표’와 ‘공백’이기 때문에 역사의 물결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되고 구조화된다는 것을 ‘수행성 이론’으로 정리하였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정되지 않은 채 변화를 거듭하며, 때로 모순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는 버틀러의 개념은, 젠더를 둘러싼 외관이 당시 사회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권장하면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인용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젠더 정체성은 ‘당대 사회적 담론의 구성물’인 것이다.

본 연구는 가변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젠더적 정체성, 그중에서도 ‘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머니는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로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규범이 여성들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인용’되면서 어느덧 그것이 여성이라면, 어머니라면 갖춰야 하는 속성이자 정

2015, 1~20쪽; 김미영, 「오정희의 「바람의 뉘」 다시 읽기」, 『한국문예비평연구』, 5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205~230쪽; 박지혜, 「오정희 <바람의 뉘>을 통해 보는 부부갈등과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투사 문제-문학치료학과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67, 한국문학치료학회, 2023, 303~340쪽.

3) 심진경, 「전쟁과 여성 섹슈얼리티」, 『현대소설연구』 3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57쪽.

4) 심진경, 위의 논문, 57쪽.

체성으로 본질화되었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버틀러는 니체를 인용하면서 행위와 수행의 과정 뒤에는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데<sup>5)</sup>,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행위의 배후에는 여성이라는 본질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구에 가까운 행위자와 행위 그 자체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당대 지배 권력과 담론의 호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텅 빈 기표와도 같은 모성 정체성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특히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만났을 때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 질문할 수 있다. 모성이라는 기표에 헌신과 희생, 순결 등의 의미를 집어넣고 이것이 여성의 본질이라 주입하는 사회에서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실체 없는 허구라는 외침은 텅 빈 메아리처럼 들린다. 그런데 지배적인 사회 권력으로 인해 수행되고 반복되던 행위가 일상이 된 현실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전쟁은 분명 폭력과 억압의 표상이지만 가부장제 권력의 일시적 이완 상태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의 특수성이 기존의 반복되던 규범·관습과 충돌할 경우, 모성 정체성 재생산의 고리는 느슨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유년의 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 거리」는 느슨해짐으로 인해 다양한 양상을 띠었던 모성 정체성이 다시금 국가 재건을 위한 이념으로 동원되는 상황을 그리는데, 이 과정에서 모성은 동물적인 것으로 소비되며 여성의 성은 권력으로부터 착취당한다. 젠더 정체성이 수행되는 상황을 근거리에서 목도하는 유년의 화자들은 행위의 '반복'과 '인용'에 동참하지는 않으나 저항의 주체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바람의 녀」은 이런 불가항력과는 같은 전쟁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안고 있는 여성 인물을 1980년대 사회라는 새로운 맥락 안에 위치시킨다. 전쟁을 지나온 여성에게 80년대 사회는 또 다른 양상의 섹슈얼리티 수행과 통제를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 인물은 아이를 두고 끊임없이 집을 나가는 어머니가 되고 만다. 그러나 저항의 주체자가 되지 못했던 유년의 화자와는 달리, 한 아이의 엄마가 된 「바람의 녀」의 여성 인물은

5)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131쪽.

폭력과 야만의 외부적 환경 속에서 권력의 가운데를 조준하며 반복을 전복하고 위치 변경을 꾀한다는 점에서 저항의 주체자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동안 모성에 천착하여 오정희 소설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특히 전쟁이 배경인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에서 기존의 신성화된 모성과는 차별화된 지점에서 있는 어머니들에게 주목하면서, 비정하거나 동물적인 모성의 양상에 영향을 받은 유년기 화자가 어머니 되기를 거부하는 과정을 성장의 관점으로 추적하기도 했다.<sup>6)</sup> 이때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버틀러의 이론을 연구 방법론으로 채택한 주지영과 문화의 논의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sup>7)</sup> 이들 모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으로부터 동원되고 규정된 여성의 정체성이 어떤 양상으로 재현되는지 집중했다. 그러나 이 글은 앞선 논의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으면서도 오정희가 그리고 있는 모성 정체성의 수행이 지배 권력에 반(反)한다는 것과 지배 담론을 함께 횡단하는 시각으로 읽히는 모호한 경계를 짚어내어 주체성과 연결 짓고자 한다. 전쟁과 그것이 낳은 상흔은 역사의 흐름 위에서 끊임없이 맥락화 된다. 이 글이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의 고리를 「바람의 넋」과 연결 짓는 이유는, 여성을 둘러싼 정체성의 수행이 무대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긴 시간 동안 그 반복 속에서 “새로

6) 심진경, 「오정희 초기 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한국문학과 모성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태학사, 1998; 김현숙, 「한국 여성 소설문학과 모성」, 『여성학논집』 14-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8, 9~38쪽; 심진경, 「여성의 성장과 근대성의 상징적 형식: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85~205쪽; 나병철, 「여성 성장소설과 아버지의 부재」,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83~214쪽; 김영애, 「오정희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성장소설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367~394쪽.

7) 주지영은 오정희의 「유년의 뜰」에서 가부장제 질서의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주체가 되고자 하는 오빠의 욕망과 실패로 인한 좌절을 언어의 수행성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오빠가 수행하는 당대 규범은 미국 중심주의와 출세지향주의이며, 그 속에서 전쟁이라는 파행적인 사회 상황으로 인해 좌절을 겪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빠는 가부장제 질서를 수행하는 폭력적인 주체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권위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나'와 반대되는 인물로 논의된다. 주지영, 「딸의 수행 양상을 통해 본 피난민 가족의 몰락과 저항의 가능성-오정희의 「유년의 뜰」-」, 『현대소설연구』 73, 현대소설학회, 2019, 179~225쪽; 특히 이 글은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의 여성 정체성을 전쟁이라는 시공간에서 탐구하고 있는 연구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았다. 문화는 그의 연구에서 각 작품에 나타난 유년 화자가 여성 인물들을 통해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버틀러의 우울증적 젠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문화, 「전쟁의 시공간에서 형성된 여성 정체성의 불연속성-오정희의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6, 현대소설학회, 2019, 175~204쪽.

운 방식으로 배역을 재탄생<sup>8)</sup>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성이라는 성질에 담긴 정체성이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 실체 없는 허구이면서도 “반복을 통한 제도 규범의 수행이 가져올 전복<sup>9)</sup>을 피한다는 이러한 시각을 통해, 전쟁이라는 폭력 앞에서 여성 인물이 어떻게 주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어머니들을 억압하는 현실을 목도한 여자아이의 자각이 곧 성장의 일환이라는 앞선 연구의 초점에서 더 나아가, 물리적 성장을 끝내고 어머니가 된 여성의 내면에 파고들었을 때 그것이 비록 체제 내부 일지라도 형상화된 저항의 움직임에 포착할 가능성이 생긴다. 현실을 견뎌내는 지난한 수행의 반복은 반드시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틀러의 렌즈로 오정희의 전쟁 3부작을 독해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 단순히 유년기 화자의 성장 혹은 여성성 획득이 지닌 함의가 아닌 지배 권력<sup>10)</sup>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룬 내적으로 사유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수행의 일시적 균열과 환원의 전쟁 모성

「유년의 뜰」(1980)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가변적으로 구성되고 배치되는 모성의 양상이 나타난다. 한국 사회가 부여한 모성에 담긴 정체성은 헌신·희생·순결(정조)의 코드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는 원활한 생산과 양육, 바람직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짜여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오정희의 「유년의 뜰」은 압축된 정체성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자의 획일

8)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33쪽.

9)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43쪽.

10) 버틀러의 사유에서 ‘권력은 푸코의 권력 담론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푸코의 권력은 오로지 강제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권력의 작동을 감수하는 자의 일정한 자유를 전제하고 있다. 즉 권력으로부터 구성된 자는 권력의 작동으로부터 예측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 작동이 전제하는 일정한 자율성을 갖춘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권력이 지배 집단이 획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집단이 의도하는 ‘총체적인 효과’이기 때문이다. 푸코의 권력론을 통해 버틀러는 구성되는 주체가 자신을 생산한 권력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착한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대 정치철학의 네 가지 흐름』, 에디투스, 2019, 157-173쪽.

적인 반복이 보이지 않는다.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들은 일상의 파괴를 가져온 전쟁이라는 무대 위에서 반복되어 오던 모성 정체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수행한다.

어머니는 등 뒤의 작은 시위-그러나 오빠 나뭇대로는 필사적인-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침으로 탁탁 얼굴을 두들기고 가늘고 둥글게 눈썹을 그렸다. 나는 조마조마 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번갈아 보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호기심과 찬탄으로 거울 속에서 점차 나팔꽃처럼 보얗게 피어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sup>11)</sup>

해 질 무렵 읍내 밥집으로 출근하기 위해 어머니는 화장을 하고, 큰아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불만을 토하듯 영어책을 소리 내 읽는다. 그리고 화자인 '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이유 모를 조바심을 느낀다. 작품 속에서 이들의 모습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어머니가 시집을 매가지고 온 거울 때문이다. 이 거울은 방 한구석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남루해져가는”(12) 가족의 처지를 비춘다. 거울은 각자 구성된 정체성을 수행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행위가 그대로 노출되는 ‘무대’와도 같다.<sup>12)</sup> 전쟁을 배경으로 둔 무대 위 행위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반복하거나 인용 혹은 모방하면서 정체성을 다시금 수행하는데, 이들이 수행을 재편할 수 있는 까닭은 무대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로 대변되는 가부장 권력은 어머니를 집에 속박시키고 가정을 돌볼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가 부재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수행에 끊임없이 당위성을 부여하던 권력도 함께 자리를 비운 것이다. 어머니는 생계유지를 수행하던 아버지라는 행위자의 자

11) 오정희, 『幼年の 딸』, 『幼年の 딸』, 文學과 知性社, 1981, 12쪽. 이후 오정희의 『유년의 딸』과 『중국의 거리』를 인용할 경우, 이 판본의 쪽수만을 표기한다.

12) 거울은 정체성을 수행하는 행위자들의 무대인데, 이때 무대는 정체성에 부여되는 지배 권력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변화의 가능성을 맞이한 전쟁을 배경에 둔 무대이다. 버틀리의 개념으로 이를 이해하자면, ‘연극적 수행성’과 그 궤를 같이한다. 연극적 수행성이란 “무대 위에서 연극 행위를 하는 배우처럼 인간은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늘 다르게 반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의미이고, 이때 사회라는 무대는 “구체적 시간과 공간의 맥락” 위에 존재한다. 조현준, 앞의 책, 43쪽.

리를 이어받아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집 밖을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수행하는 모성의 양상은 새롭게 재구성된다. 어머니는 보양게 화장하고 읍내 밥집에 출근하며 늘 술에 취해 귀가하고 그마저도 잦은 외박으로 인해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다. 읍내의 정육점 사내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 또한 파다하게 퍼진다. 어머니가 수행하는 모성에 희생이나 헌신 그리고 순결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버틀러식으로 해석하면, 어머니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반복된 수행을 끊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지배 권력과 담론이 무력화된 무대 위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수행하던 행위의 일정 부분을 이행하며 자신을 둘러싼 기존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새롭게 인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어머니의 수행만 재편되는 것은 아니다. 버틀러는 권력을 거부되거나 철회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전쟁의 상황에서도 권력은 완전히 초월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게, 어머니를 단속하고 여자 형제들을 감시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큰오빠의 행위에서 확인된다. 오빠는 “자신이 가 장임을 지나치게 의식”(25)하고 있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 아버지가 없는 무대에서 작은 폭군이 되어 아버지가 수행하던 행위들을 대신 인용한다. 아버지를 구성하는 핵심 정체성인 집 안의 가장 역할을 나이가 제일 많은 할머니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가 아니라, 남자인 큰오빠가 모방하는 것은 기존의 지배 권력이 완벽히 사라진 게 아님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은 행위자인 큰오빠도 수행을 무탈하게 반복하는 것만은 아니다. 아버지를 똑같이 모방하고 반복하려 해도 오빠는 항상 “어린 애처럼 연약하고 애매”(25)해 보이는데, 이는 수행되던 일상의 지속성이 전쟁으로 인해 무너졌고 아버지가 수행하던 가부장의 정체성을 완벽히 모방하고 인용할 배움의 기회가 갑작스레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오빠는 ‘작은 폭군’이 되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언제나 긴장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불안한 수행을 이어갈 뿐이다.

기존의 반복된 모성의 굴레에서 이탈한 어머니 또한 지배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큰오빠에게 “늙은 갈보”(44)라는 힐난을 들으면



서도 가부장제 사회가 설정한 궤도 바깥을 맴도는 어머니지만, 외할아버지의 첩이었던 할머니를 경멸의 대상으로 삼는 시선에서는 견고한 권력 구조의 속성이 드러난다. 「유년의 뜰」에서 할머니는 집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는 실질적 양육자다. 할머니는 기생 출신으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이지만,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어머니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인물이다. 모성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으로 의미화하는 사회의 규범과 인식의 전제가 ‘아이 를 낳은 여자라면 응당 가져야 한다는 내재성’이라 할 때, 「유년의 뜰」 속 할머니는 모성이 갖춰야 하는 그 어떤 전제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머니는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듯 새로운 모성의 수행을 보여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기생 출신의 첩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으로 늙어가는 할머니를 경멸하는 모습을 통해, 내면화된 가부장적 삶의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체성의 모순’을 보여주는 수행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화자인 ‘나’는 “어머니처럼 다산의 흉한 주름이 없는 배”(35)를 가진 할머니의 몸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그동안의 인물들처럼 무대 위에서 구성된 정체성으로 움직이는 행위자라기보다 흡사 관찰자적인 측면으로 다가온다. 자기 앞에 당도한 현실이 마치 무대와도 같다는 걸 인식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핀 소설의 처음 부분, 거울에 대해 말하는 장면에서부터 드러난다.

소꿉놀이를 하다가도, 게으르게 눈을 껌벅이며 잠에서 깨어나서도, 싸움질을 하다가도,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도 문득 눈을 들면 방의 한구석에 버티어 선 거울이 뒷모습까지도 환히 비추는 바람에,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낯설게 만나지는 자신에게 경원과 면구스러움을 느껴 옆으로 슬쩍 비켜서거나 남의 얼굴처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12쪽)

‘나’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정체성이 새롭게 수행되는 무대를 낯설어하면서도 면밀히 주시한다. 그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수행되는 어머니의 행위들, 큰오빠의 중단된 반복으로 인한 인용의 오류를, 아이를 낳은 적 없는

할머니의 몸을 아름답다고 인식하면서 안에서부터 조금씩 꿈틀거리는 변화의 기류를 감지한다. 그러나 ‘나’가 목도하는 변화는 겉으로 발화되지 않는다. 무대 위 행위자들의 수행 도구는 언어, 즉 말인데, 작품에서 ‘나’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끊임없이 먹을 뿐이다. 수행성의 측면에서 행위한다는 것은 ‘텅 빈 기표’로서 당대의 맥락과 담론에 탑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수월하게 이행하는 것인데, ‘나’는 당시 아이로서 전해야 하는 대사와 지문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내부로 꾸꾸꾸역 밀어 넣으며 은폐한다는 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르게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내 언어로 발화되지 않는 점은 ‘나’가 규칙에 갇힌 무대 위의 행위 주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사회의 권력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등성이 너머에서는 여전히 대포 소리가 들려”(49)오고 있으나 전쟁은 언젠가 종결된다. ‘나’는 작품 곳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내비치는데 이는 모두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둔 감정이다. 전쟁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양상의 정체성 수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파괴되었던 지배 권력과 규범은 전쟁의 종결과 함께 언제든 다시 무대의 배경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은 바람나 도망간 아내 대신 아이들을 때리는 순자 아버지, 자유롭게 살기 위해 도망치려던 딸을 감금한 외눈박이 목수, 읍내에 나가는 어머니와 언니를 감시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큰오빠를 통해 증명된다. 가부장적 권력을 착실히 수행하는 이들은 권력이 부여한 질서의 논리를 반복하고 인용하지 않는 수행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한다.

부네의 어머니가 이러한 감시에 동참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안집 여자로 명명되는 부네의 어머니는 ‘나’의 식구들을 감시한다. ‘나’와 언니는 큰오빠와 안집 여자의 이중적인 감시를 받으며 지낸다. 특히 ‘나’가 떨어진 감을 주워 먹지 않을까 경계한다. 먹는 행위가 ‘나’의 유일한 표현 행위이자 수행 도구라고 볼 때, 먹는 것을 금지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억압으로 다가온다. 또한 안집 여자는 처녀로 죽은 딸의 혼백을 달래기 위해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 등, 여자라면 순결한 모습으로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마땅

하다는 사회의 암묵적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만드는 수행자인 것이다. 여성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이러한 인물들과 자유로운 수행자인 어머니마저도 때로 모순된 정체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나’는 여전히 그들을 관찰하며 먹기만 할 뿐, ‘나’의 언어적 발화는 쉽게 이행되지 못한다.

「중국인 거리」(1979)는 전쟁이 끝난 후 피난지에서 항구 도시로 이사 온 ‘나’가 중국인 거리를 배경으로 겪는 성장통을 그린 이야기다. 작품의 화자 ‘나’는 전쟁이 한창이던 때 살았던 피난지에서의 기억을 ‘해인초’ 냄새를 통해 기억한다. ‘나’가 떠올리는 유년의 기억은 ‘자유로운 수행의 기억’이기도 하다. 감시와 처벌로 인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다채로운 정체성의 수행이 가능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은, 전쟁이 끝난 후 재건과 회복이 한창인 항구 도시에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웠던 때로 자리한다. 이때의 회복은 상실과 훼손을 통한 물리적 내상과 함께 정신적인 상처까지도 되돌려질 것을 내포한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주창했던 사회적 이념은 국가와 가정의 동일시였다.<sup>13)</sup> 가정 내부로부터의 재정비와 회복이 곧 국가의 재건이라는 뜻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다시금 동원된 정체성이 바로 ‘모성’이다.<sup>14)</sup> 모성은 전쟁으로 인해 손실된 인력을 생산해야 하는 의무와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정신의 조각들을 이어 붙여주는 역할로 다시금 호명된다.

「중국인 거리」의 ‘나’는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어머니의 동물적 삶을 그로테스크하게 바라보고, 가정에 속박되어 출산만 거듭하는 삶으로 인해 정작 자녀들에게 관심이나 애정을 주지 않는 어머니를 ‘계모’라 칭하며 집을 나가고 싶어 한다. 이를 두고 “어머니의 몸을 보면서 ‘나’의 ‘여성성’도 훼손될지 모른다는 불안감”<sup>15)</sup>이 모성을 긍정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분석한

13) “국가는 가정의 확대이고 민족은 가정의 연장이라는 이념에서 진정 국가가 성립한다.”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90쪽.

14) 사라 러딕은 모성적 사유와 군국적 사유를 비교하며 남성들의 사업인 전쟁의 위험 대신 몸을 보존하고 정신적 성장을 돌보며 양심을 훈련시킬 어머니들의 사유 체계야말로 진정한 평화로의 도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사라 러딕,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 현실사, 2002, 229~257쪽. 권명아 또한 “상실된 나를 복원”할 수 있는 공간은 모성이 있는 집이며, 이를 전후 소설의 중요한 키워드로 꼽기도 했다. 권명아, 『모성신화의 기원, 그 파시즘적 형식에 관하여 -전후 경험과 모성신화의 형성 과정 연구』, 『원우론집』 30,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37~60쪽.

15) 문화, 앞의 논문, 196쪽.

연구가 있으나, 희생하고 돌보는 ‘모성적 사유 체계가 「중국인 거리」의 ‘나’에게 인용해야 할 정체성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쟁 후 재건과 복원에 힘쓰고 있는 사회 체제 자체가 나로 하여금 수행을 거부하게 만드는 무대인 것이다. 이 무대는 “제도 문화의 이차적 구성물”<sup>16)</sup>로서 패러디된 무대라고도 할 수 있다.

전쟁의 유년기 속에서 자유로운 수행의 기억을 안고 살던 ‘나’가 항구 도시에서 유일하게 긍정하는 여성인 ‘매기언니’는 미군을 상대로 매춘하는 여성으로, 흑인 병사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은 인물이기도 하다. ‘매기언니’를 향한 ‘나’의 찬탄 어린 시선은 스스로가 매춘 여성임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는 것, 미군과 동거하면서 그의 아이를 낳고 그와 함께 미국으로 갈 꿈을 꾸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매기언니를 둘러싼 이러한 요소는 그녀가 그 당시의 도덕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sup>17)</sup> ‘나’는 규범을 따르지 않는 매기언니가 끊임없이 아이를 배고 출산을 반복하는 어머니보다 더 인용하고 싶은 정체성에 맞닿아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의 수행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던 매기언니가 미군에 의해 처참히 살해당하는 것은 「유년의 뜰」에서 부네에게 행해졌던 처벌의 양상과 같다. ‘나’는 매기언니도 죽고 한 번도 자식을 실어보지 못한 할머니마저 떠나보내면서 새롭게 변주되던 수행자들에 대한 인용의 동력을 모두 잃고 만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도시의 재건으로 형상화되는

16) 패러디적 정체성은 원본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복사본 대 복사본으로서의 모방을 뜻한다. 이때 복사본은 ‘원본이라고 가정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층 더 “이상화된 인공적 자질”이며 “당대의 이상적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가 모방하는 것은 “제도 문화의 이차적 구성물”로서의 인공적인 이상이기 때문에 모성 정체성의 구성 과정의 모순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조현준, 앞의 책, 38~40쪽.

17) 전쟁 이후 여성 노동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매춘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극도의 생활난과 남성 부재라는 현실 속에서 여자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노동의 형태”를 살리는 것과 “군인이라는 특수하고 격리된 남성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필수 자원으로서 국가가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양공주는 ‘사회악’으로 명명되며 미국식 자유와 소비문화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여성들’로 여겨지면서 동시에 “재건 질서를 훼손하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이입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14, 고려사학회, 2003, 269~270쪽; 허윤,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2016, 89쪽.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당시 매춘 여성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그들을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혐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의 폭압, 국가가 앞장서서 민족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가정 내부에 귀속시켜 재생산만을 도모하거나, 군 체제의 연대와 사기 증진을 위해 부속품처럼 착취하는 등의 일상은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해인초 냄새가 묘사되지 않는 것처럼 현실 그 자체가 된 것이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주머니 속의 케이크를 꺼내 베어 물었다. 그것을 다 먹고 났을 때 갑자기 욕지기가 치밀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꾸역꾸역 토해내었다. (...) 어두운 뚱뚱 속으로 어디선가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고 눈물이 어려 어롱어롱 퍼져 보이는 눈길에 부엌계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무엇인가 빛 속에서 소리치며 일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54쪽)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이었지만 여덟 번째 아이를 밀어내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끈하게 죄고 있는 후덥덥한 열기를,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아내었다. 초조(初潮)였다. (81쪽)

위 인용은 두 작품의 결말 부분이다. 「유년의 뜰」에서는 무대의 배경으로 기능하던 전쟁이 막을 내리고 아버지가 돌아온다. 이때의 아버지는 ‘나’의 기억과 환상 속에 존재하던 아버지가 아니라 순자 아버지, 외눈박이 목수, 큰오빠처럼 실재하는 아버지다. 그리고 그는 가부장적 질서와 규율을 강력히 내면화하고 끊임없이 지속시키는 권력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나’는 다시 구성되고 수행될 정체성의 반복에 두려움을 느끼며 구토한다. 그런데 먹기만 하면서 내부로 은폐하던 ‘나’가 구토를 한다는 것은 최초의 발화 현상이기도 하다. 주변 여성들의 모성 수행을 관찰하던 구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화하는 이 지점을 많은 연구가 가부장제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논하였다. 구토라는 행위 자체가 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부 반응임을 상기할 때, 내재화시키지 못하고 밀어내는 것은 버틀러식으로 해석하여도 ‘몸의 저항성’이라 할 수 있다. 언제나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하는 몸의 순환 원리가 역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젠더 수행상의 구성적 실패이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러나 소극적이거나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했던 '나'의 발화는 전쟁이 낳은 폐허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과 초조(初潮)의 벽에 가로막힌다. 자유로운 수행의 기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여덟 번째 아이를 밀어내며 국가 인력의 재생산에 일조한다. 어머니의 출산과 '나'의 초조가 나란히 놓이는 지점은 견고한 지배 권력과 담론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는 유년의 '나'가 토하며 보았던 어룡거리는 빛마저 차단되는 어두운 옷장으로 형상화된다. 은폐하며 관찰만 하던 아이는 저항의 의미를 담은 소극적 발화를 이행함으로써 주체적 행위자로의 도약을 꿈꾸었으나, 지배 권력의 환원으로 인한 가학성과 억압을 다시금 목도하며 좌절한다. 두려움을 안고 소리 내어 어머니를 부르지만, 옷장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는다. 다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을 옥죄는 불쾌한 끈끈함의 정체가 생리혈,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뿐이다.

「유년의 뜰」의 결말이 아버지의 귀환으로 다시금 재편될 수행의 권력과 그것을 반복하게 만드는 무의식에게 내지르는 불협화음으로 읽혔다면, 「중국인 거리」는 여성에게 더욱 비참한 폭력을 안기는 전후(戰後) 상황에서 초조라는 물리적 성장의 실재를 대면하게 한다. 이는 '나'에게 이제 진정으로 모성 정체성을 어떻게 인용하며 수행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당도한 것과 다름없다. 매기언니와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어머니의 출산을 바라보는 '나'의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시선에서 작동하는 정체성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 권력의 균열과 저항의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초조를 시작한 '나'는 더 이상 관찰자적 측면으로만 머물 수는 없다. 성장과 함께 권력 수행의 복판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여성이 짙어진 운명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저항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양상으로 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쟁의 기억을 품은 채 물리적 성장을 끝낸 뒤 어머니가 된 여성에게로 시선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18)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323~326쪽.

### 3. 전쟁의 기억으로 인한 우울증적 모성

#### 1) 1980년대의 집과 모성

「바람의 뉘」(1982)에는 욕정이 들끓는 어머니, 짐승처럼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어머니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반복해서 집을 나가는 어머니가 등장할 뿐이다. 남편과 아이를 두고 일 년에 세 번이나 가출하는 인물인 ‘은수’는 가출 이유를 자신조차 모른다. 「바람의 뉘」은 총 4장의 이야기로, 1장과 3장은 남편 ‘세중’의 일인칭 시점으로, 2장과 4장은 삼인칭 시점(아내 ‘은수’가 초점 인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의 이러한 시점 선택은 독자로 하여금 남편의 입장에 이입하기 수월하도록 유도한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 평온무사한 일상 속에서 함께 살을 섞고 사는 사람들끼리 속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일 계기란 얼마나 적은 것이라. 또한 인간이란 얼마나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다면체이라.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나는 충격보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떨었다.<sup>19)</sup>

결혼 후 아내가 처음 감행한 가출의 행선지는 신혼여행 때 묵은 호텔이었다. 일주일 동안 일상도 뒤로한 채 아내를 찾아다니고 걱정하던 남편은 아내가 있는 곳을 알게 되자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며 “여자의 감상벽 정도로 가깝게 처리”(198)해 버리곤 다시금 안온한 일상으로 복귀한다.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의 마음이 일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면서 독자는 남편이 흔히 폭압적으로 그려지는 가부장적 남성상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인물인지 체감한다. 겉으로 보았을 땐 전혀 문제가 없는 남편과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는 가정에서 아내는 또 집을 나가고, 남편은 결국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 독자는 남편의 그러한 감정을 납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평

19) 오정희, 「바람의 뉘」, 『바람의 뉘』, 文學과 知性社, 1986, 198쪽. 이후 오정희의 「바람의 뉘」을 인용할 경우 이 판본의 쪽수만을 표기한다.

생을 사”(201)나는 것을 가출의 유일한 이유로 처리해 버리는 아내의 대사에  
서, 작품은 독자에게 아내를 쉬이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서술 전략을 취하  
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의도된 서술 아래에서 “불리한 입장”<sup>20)</sup>에 놓여 있는 아내 ‘은수’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의 뉘」의 주요한 분석의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은수’  
는 어떻게 갓 돌을 넘긴 아이를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가는 “짐승만도 못  
한”(200) 어미일 수 있는가. 가출의 이유를 본인조차 알지 못하고 뚜렷한 목  
적지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가출의 ‘출(出)’보다 ‘가(家)’로 초  
점을 옮겨보자.

전쟁과 전후 복원의 사회를 거치면서, 집은 권명아의 분석처럼 ‘모성의 집’  
이었다.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또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  
실해 버린 자들을 기꺼이 끌어안는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표상되었다. 이 집  
이 1980년대의 맥락에서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1980년대에서의 집은  
‘가부장 권위의 추락’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때의 가부장 권위는 그동안 무  
서운 존재로 여겨지던 ‘원초적 아버지’들이 지니던 이미지다. 이들이 제거되  
고 “표면상으로 도덕적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질서가 세밀하게 구축”<sup>21)</sup>  
되는데, 박찬효는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의 현상을 두고 “경제적 능력 및  
윤리성을 갖춘 아버지와 물질적 정신적 여유를 누리면서 가족의 경제권까지  
장악한 전업주부”<sup>22)</sup>라는 중산층 핵가족 이미지로 정의한다. 이는 그 당시  
‘아름다운 집’의 전형으로서 사회가 구성한 것이다. 집에 부여되는 이러한 정  
체성, 그 안에서 중산층 핵가족 구성원으로서 수행되는 수행자들은 복잡한  
관계망 속의 구성물로서 반복과 인용을 거듭한다. 남편 세중은 사회가 요구  
하듯 “넉넉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살아갈 만한 돈을 벌어들였고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고, 가정의 아늑함을 소중히 여”(202)기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가장  
이다. 그렇다면 ‘은수’는 어떨까. 정확히는 중산층 핵가족의 아름다운 집을

20) 정재립, 앞의 논문, 390쪽.

21) 박찬효, 『한국의 가족과 여성혐오, 1950~2020』, 책과함께, 2020, 158쪽.

22) 박찬효, 위의 책, 155쪽.



지탱하는 수행자로서의 어머니인 ‘은수’말이다. 사회의 요구를 착실히 수행하는 가장의 눈으로 ‘은수’를 본다면 단순한 느낌과 감상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할 것이다. 그의 눈에 ‘은수’는 그저 살림과 돌봄, 육구의 충족만 적당히 시켜주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림이라면 초등학교 일학년 때 미술 교과서에 그려 있던, 화분에 심은 튜립 그림을 지극히 평면적으로 그린 기억밖에 없는 내게 그림을 전공했다는 사실은 확실히 멋있고 대단해 보였다. 그렇다고 아내가 화가로서 입신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다.

(중략)

집의 허전한 빈 벽에 복제 그림을 거느니 이왕이면 아내가 그린 것을 거는 게 낫겠고 마당이 넓은 집을 마련한 뒤 장미가 만발한 유월의 뜰에서 이젤을 세워놓고 물감 냄새를 풍기며 그림을 그리는 아내를 보는 것도 좋으리라. 어차피 나는 약간의 예술적 분위기를만 탐하는 평범한 소시민인 것이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가져온 아내의 집 속에는 한 자루의 붓도 끼어 있지 않았다. (186~187쪽)

아내는 회화를 전공했으나 살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데는 쓸모가 없으니 전공을 살리지 않아야 하고, 중산층 핵가족의 정형화된 이미지는 착실히 수행해야 하니 정신적 측면의 여유를 보여주는 것에는 기꺼이 그 쓸모없는 회화 실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바람의 넋」의 남편이 바라는 ‘은수’는 80년대의 사회가 구성한 규범과 권력을 수행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이다. 수행자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여성이 수시로 집을 나가니 아내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지 고뇌하는 남편의 독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수행되는 아내와 어머니라는 규격으로 ‘은수’를 찾고자 한다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은수’ 역시 80년대 사회의 맥락이 구성한 가족 이데올로기 속 어머니의 정체성으로부터 규격대로 소속되지 못한 채 이탈을 반복하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소설은 언제나 집을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끼니를 차리며 아이를 돌보는 행위의 뒤에 ‘은수’라는 실체는 없고,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수행의 무대인 집을 나가버리는 것처럼 읽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연구가 개진하였듯<sup>23)</sup> 중산층 여성의 욕망적 일탈이라는 분석의 일환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수행의 반복을 거부하는 ‘은수’의 행위를 우울증적 측면으로 분석하자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남편에게 아내를 늘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한 눈빛”(188)의 여성으로 비취진다. 공허한 눈빛에서 읽히는 무기력함, 극히 폐쇄적인 생활 반경, 극심한 충동성, 형편없이 적은 식사량, 지붕과 같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이유 없이 서 있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는 것 등은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들의 일종으로 보인다. 결혼 생활로 인한 우울증이라기엔 남편 세중은 흔히 말해 ‘하자’가 없는 모범적인 가장이라는 것이 상세히 서술되고 있고, 산후 우울증이라기엔 아이를 낳기 전부터 반복된 가출이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은수’라는 사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그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 2) 예속과 저항 사이에서 탈-반복하는 정체성

더없이 다정하고 무람없는 어머니에게서 어쩌다 가끔씩 느껴지는 -아마 어머니 자신도 의식지 못했음이 분명한- 선불리 안기지 못하게끔 밀어내던 차가움, 본능적으로 감지되던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공기, 그리고 집에 드나드는 친척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호기심과 연민이 깃든 눈초리 따위가 대번에 확연히 맥락이 닿아 왔던 것이다. 그때 불현 듯 떠오르는 생각은, 다만, 이곳은 내 집이 아니더라는 것뿐이었다. (210쪽)

위 인용문은 ‘은수’의 첫 번째 가출의 이유가 서술된 대목이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은수’는 자신이 기거하는 방, 먹고 있는 밥이 내 것이 아닌 듯 생경하게 느껴졌고, “언제나 임시로 머물러

23) 성민엽, 「존재의 심연에의 응시」, 『바람의 뉘』 해설, 문학과지성사, 1986, 277~286쪽; 김영미·김은하,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탐구」, 『오늘의 문예비평』, 1991년 가을호, 68~82쪽.

있는 듯한 기분을 불러일으키”(211)는 ‘고아 의식’에 지배당해야 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이유뿐일까. ‘은수’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지긋지긋한 헤매임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213)한다는 것을 다짐한다. “결혼은 ‘옳겨 심음’이 아닌 파종, 새로운 뿌리내림”(213)이기 때문이다. 결혼으로써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은수’가 염원하던 정착이고 뿌리내림이지만, ‘은수’의 가출은 결혼 후 더욱 빈번해진다. ‘은수’를 둘러싼 고아 의식으로서만 그녀의 우울증적 행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에 ‘최초의 기억’에 주목해야 한다.

최초의 그녀의 기억은 이 층으로 오르는 어둑신하고 가파른 나무 계단과 하얗게 햇빛이 쏟아지는 마당에 나뒹굴고 있던 두 짝의 작은 검정 고무신이었다. (211쪽)

아이는 햇볕 가득한 마당에 부엌계 먼지를 쓰고 나뒹구는 두 짝의 검정 고무신만을 멀거니 바라볼 뿐 절대로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이를 남겨두고 안으로 들어가 그 여자는 부엌 앞에 쓰러진 여자와 다락 층계에 엮어진 남자, 마루에 엎드려 있는 여자아이의, 이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이 부패한 시체를 보았다. (273쪽)

‘은수’의 최초 기억은 마당에 나뒹굴고 있는 작은 검정 고무신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곳이 어디인지, 고무신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이 기억의 진실은 사실 ‘은수’가 전쟁으로 인해 눈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쌍둥이 여동생이 도륙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어릴 적 애정의 대상에 대한 상실을 경험했을 때 ‘애도’와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때 우울증은 애도의 실패로 인해 생겨나는 것으로서 애정 어린 대상에 대한 상실을 극복할 수 없어서 대상을 주체의 에고로 합체해 버리는 내면화 과정이자 병리적 반응이다. 이를테면 남아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근친에 금지로 인해 필연적으로 잃어야만 할 때, 그 대상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자아 안으로 합친다는 말로도 풀이될 수 있다.<sup>24)</sup>

버틀러는 상실한 사랑을 내면화하는 우울증적 형성 과정과 젠더 정체성의 형성 과정의 유사성을 파악한다.<sup>25)</sup>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김없이 ‘이성애적’인 것이 기반으로 깔린 프로이트의 시선을 비판한다. 우울증이라는 대상 상실의 경험이 오이디푸스적 상황과 만났을 때 “일련의 처벌이 따르는 금지의 명령”<sup>26)</sup>을 받는 것이고, 동성애에 대한 금기가 이에 해당한다. 버틀러는 이성애를 외부로부터 행해지는 도덕적 명령의 강제적 내면화로 이해하면서, 이를 걷어내고 우울증 생성 과정 그 자체를 바라보기를 제안한다. 「바람의 뉘」을 이에 대입해 보면, ‘은수’는 전쟁으로 인해 끔찍한 죽음을 당한 엄마와 쌍둥이 여동생을 자신의 에고로 합체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죽음과 여동생에 대한 기억을 반복하여 상기하며 충격과 상실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우울증 생성 과정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눈앞에서 가족의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죽는지는 상세하게 서술하는 반면, 아버지의 죽음 목도 장면은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은 지점이 이를 뒷받침한다.<sup>27)</sup>

상실된 이들의 죽음은 특히나 많은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비롯된 극심한 빈곤과 극악무도한 잔인성으로 훼손된 것이기 때문이다. ‘은수’는 그 속에서 자신만 생존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파괴적이고 자멸적인 병의 길로 들어선다. 그녀는 계속해서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방황하기도 한다. 이 병은 결혼과 양육이라는 수행의 무대로 접어들었을 때 더욱 극렬히 발병한다.

24)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96~204쪽.

25) 우울증적 정체성이란 주체의 에고가 과거 “사랑했던 대상의 집적물”이며 이것이 젠더 정체성 획득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프로이트의 논의를 버틀러가 젠더적 정체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조현준, 앞의 책, 143쪽.

26)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208쪽.

27) “사내들은 신을 신은 채 성큼성큼 마루로 올라왔다. 저마다 손에 곡괭이와 쇠 지렛대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방문 앞에 엄마의 얼굴이 비치다가 하더니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계집애는 엄마에게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큰 공포가 변소 문고리를 잡은 손을 단단히 잡고 놓지 않았다. 사내들이 방을 나와 부엌 쪽으로 가자 머리에서 피를 쏟으며 기어 나온 엄마가 그중 한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사내는 간단히 엄마를 향해 곡괭이를 찍었다. 잠시 후 쌀자투와, 무엇인가로 통통해진 보통이를 둘러메고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271~272쪽)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은수’의 이러한 ‘최초의 기억’이 바로 그녀가 집단으로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떠올랐다는 것이다.

스커트는 허리 위까지 말려 올라가고 사내의 체중에 짓눌린 허리 아래는 완전히 알몸이었다. 나는 왜 기절도 하지 못하는가. 눈과 귀를 환히 열고 이 모든 냄새, 모든 소리, 풍경을 기억 속에 각인해야 하는가. 무거운 추를 단 듯 몸은 한없이 한없이 아래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가닿는 밑바닥은 무엇인가. 바닥을 보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은수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에도 햇살은 눈부시고 비랑의 진달래는 선연히 붉었다. 그리고 햇빛 아래 널부러진 자신의 모습이, 사지를 편에 쫓혀, 아직 죽지 않은 의식으로 퍼들대는 해부대의 개구리처럼 떠올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왜 불현듯 기억의 맨 밑바닥에서 물에 잠긴 사금파리처럼 빛나는 최초의 기억, 튀어오를 듯 강한 햇빛과 나뉘구는 두 짝의 고무신이 떠오르는가.  
(222쪽)

‘은수’는 어머니에게 반찬을 받으러 가던 길이었고, 그날도 바람을 쐬며 “원초적인 평안함”(217)을 느끼고자 산에 올라간다. 그곳에서 “예비군복”(217) 차림의 사내들에게 윤간을 당한다. 그들은 이런 곳에 혼자 와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며 원인이 ‘은수’에게 있음을 함의하는 조롱까지 한다. 그런데 이때 ‘은수’는 그동안 어렵풋하게만 느껴지던 고무신 두 짝의 기억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오른다. 선행 연구들이 이 상황을 두고 전쟁으로 인해 발생했던 죽음의 상황과 유사성을 분석<sup>28)</sup>하며, 트라우마의 장소로서 사라지지 않고 재현되는 것<sup>29)</sup>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수’의 윤간 장면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현장의 유사성 때문에 기억이 발현된다는 지점이 아니라, 왜 하필 그녀가 ‘윤간’을 당하는 것이며, ‘은수’는 심지어 그것을 ‘각인’하고 제3자로서 사건의 현장을 관망하듯 ‘내려다보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예속’을 받아들여야만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반

28) 정재림, 앞의 논문, 393~394쪽.

29) 김미영, 앞의 논문, 212~213쪽.

증하는 것이다. 이때의 ‘주체’는 근대적 자율성을 지닌 주체가 아니다. 행위 뒤에 행위자가 없음을 야기할 때의 그 주체다. 말하자면 “행위를 실어 나르는 매개”<sup>30)</sup>라 말하는 버틀러식 주체인 것이다. 사회와 지배 권력이 우리를 늘 이성애적 주체로 재구성한다는 버틀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결국 권력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우울증을 동반한 대상의 받아들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형성된 주체는 실제 없는 환영이 된다. 그런데 버틀러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주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주체는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권력으로부터 구성된 자는 권력의 작동 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동시에 그 작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주체’와 ‘주체’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매개는 무엇일까. 바로 예속화(subjection)이다. “예속화란 권력에 의해 종속되는 과정을 의미한다.”<sup>31)</sup> 권력으로서의 종속이 어떻게 권력에 대한 저항을 낳을 수 있을까. 권력은 수행자가 품고 수행하며 반복해야 하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수행자의 ‘존재’를 뜻하기도 한다.<sup>32)</sup> 버틀러가 “권력은 거부될 수도 철회될 수도 없고 다만 재배치”<sup>33)</sup> 된다고 말하는 것은, 권력과 수행자의 존재가 하나이기에 당대 담론의 변화와 위치성으로 수행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저항은 정체성을 해체하는 작업이 아니라, 수행자의 반복적인 의미와 과정에서 반복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고민하는 “전복적 반복”과 “위치 변경”인 것이다.<sup>34)</sup>

그러므로 ‘굴복’이라는 것이 “예속화가 발생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sup>35)</sup>이라 할 때, 어쩌면 ‘은수’에게 가해지는 윤간은,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30) 조주영, 「주체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6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80쪽.

31) 주디스 버틀러, 강경덕·김세서리아 옮김, 『권력의 정신적 삶』, 그린비, 2019, 12쪽.

32) “권력은 주체에 작용(act)을 가할 뿐만 아니라 타동적인 의미에서 주체를 존재로 실연(實演)한다. (...) 즉 권력이 주체의 효과이자 주체가 행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역전된 관점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나타난다.” 주디스 버틀러, 위의 책, 30쪽.

33)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319쪽.

34)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360-362쪽.

35) 주디스 버틀러, 『권력의 정신적 삶』, 13쪽.

바라보는 ‘은수’의 행위는, 우울증을 내면화하여 끊임없이 방황의 길을 걷던 그녀가 자신의 기원을 찾기 위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면서, 상실의 아픔으로 어머니와의 합체를 이뤘던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다. 권력의 수행자인 ‘은수’는 전쟁 없는 시대에서 마치 전쟁과 비견되는 남성들의 성적 굴복에 ‘기꺼이 노출’되면서 ‘기억의 회복’이라는 재배치권을 얻게 된다. ‘은수’는 잔인한 폭력으로부터 무력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잠재된 안타까움으로 인해 자신을 극한으로 내몰던 가솔과 우울 증적 행위의 실질적 원인을 찾게 된 것이다. ‘은수’는 이를 통해 비로소 “존재의 심연을 응시”<sup>36)</sup>할 수 있게 된다.

불투명하던 기억이 선명해지면서 ‘은수’로서는 더 이상 자신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이 자신을 훼손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윤간 당하는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몸소 그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눈과 귀를 환히 열고” 단단하게 각인하려는 모습에서는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산비탈을 내려와 집으로 향하는 밤길을 어둠이 깊고 부드럽다고 묘사하는 지점에서는 낮 동안 ‘은수’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녀를 좌절이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아직……있소? 돌아가요. 밝은 날 얘기합시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고 있는 듯 그의 목소리가 한껏 낮았다.

돌아가라니, 어디로요. 은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225-226쪽)

집을 나가기만 했던 ‘은수’는 남편으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는다. 전쟁의 비극으로 인해 애써 잊었던 최초의 기억이 선명히 제시된 직후 돌아가라는 메시지의 등장은 ‘은수’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면서 동시에 각성을 일으키게 만든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은 ‘은수’가 진정으로 돌아갈 공간이 아니게 된다. 그동안 정처 없이 떠돌던 ‘은수’가 돌아갈 곳은 정체성 수행에 어려움을

36) 성민엽, 「존재의 심연에의 응시」, 『바람의 넋』 해설, 286쪽.

겪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전쟁의 기억이며 그로부터 길을 잃은 자신과 그런 자신을 보듬었던 어머니가 있는 집일 것이며, 더 나아가 생활 속 생활이 아닌 다른 공간 즉, 수행의 반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은수’에게 어머니는 과거의 일을 말하고, ‘은수’는 완전한 기억을 되찾는다. 과거와 대면하고서 ‘은수’가 행한 일은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자란 ‘항구 도시’<sup>37)</sup>로 가는 것이었다. 그간 많은 곳을 떠돌면서도 한 번도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공간인 항구 도시를 어머니의 위치에서 방문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늘 뚜렷한 목적지가 없던 출분에 명확한 방향성이 생긴 것이며, 불행한 기억의 시초였던 공간에 자발적으로 향함을 통해, ‘은수’가 진정 예속화로써 새롭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이후 ‘은수’는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기고 중산층 핵가족을 위태롭게 지탱 하던 어머니라는 수행적 위치를 내려놓게 된다. 이제 ‘은수’는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는다. 이 집은 앞서 살핀 80년대 사회가 구성한 표면상의 아름다운 집이 아니다. ‘은수’가 ‘살아갈’ 집은 중산층 핵가족 이미지의 반복으로부터 비껴선 어머니의 집이며, 그곳에서 아직도 전쟁통의 길 위에서 방황하는 어리고 연약한 자신의 “어린 녀”(275)을 기다릴 안식처이기도 하다. 이제 ‘은수’는 늘 나가지만 했던 행위를 기다리는 것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반복될 정체성 위에 스스로 놓이는 선택을 통해 위치 변경을 꾀한다.

#### 4. 나가며: 수행자에서 주체자가 되기까지

이 글은 오정희의 전쟁 3부작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바람의 녀」에서 모성 정체성의 수행이 어떤 양상으로 재현되는지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의 측면으로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37) ‘은수’의 고향이 ‘항구 도시’라는 점 또한 「유년의 뜰」-「중국인 거리」로 이어지는 흐름과 연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년의 뜰」은 반복된 수행을 할 수 없는 無의 상태인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이 전쟁은 가부장 권력의 일시적 이완 상태를 가져오는 무대를 제공해 줌으로써, 수행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정체성 반복의 양상을 낳게 한다. 무대 위 여성들은 남편과 아이를 두고 도망가기도 하고, 아이를 한 번도 실어보지 못한 몸으로 피난지의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며, 규범에 위배 된 여성에 대한 처벌에 가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된 여성들의 수행은 곳곳에 도사리는 권력과 지배 억압의 흔적으로 위태롭다.

전쟁이 끝난 사회는 빠른 복원과 가부장제로의 회귀를 위해 더욱 이상화 된 모성 정체성을 주입하기 시작한다. 「중국어 거리」에서는 국가 재생산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어머니와 남성 집단을 수월하게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여성이 등장한다. 화자는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억압의 현실을 목격하며 괴로워한다.

「바람의 뉘」은 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가족과 유년의 기억이 현재의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전쟁을 배제한 채로 분석할 수 없는 작품이다. 안온한 가정을 지탱할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은수’는 끊임없이 가출을 시도하는 여성이다. 그녀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집은 1980년대라는 당대의 맥락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집인데, 단순히 이로부터의 탈출로만 읽는 것은 중산층 여성의 욕망적 이탈이라 정의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버틀러의 우울증적 젠더 개념을 도입하여, 전쟁의 상황에서 들이닥친 고통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한데 뒤엉켜 현재의 ‘은수’를 형성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끔찍한 기억과 마주하는 것은 실체 없는 주체가 아닌, 권력으로부터 저항하는 주체를 형성할 수 있음과 연결 지었고, 그것은 전쟁과 같이 남성 집단의 폭압성이 드러나는 윤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 수행이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주체가 없다면 정체성을 구성할 수 없고, 정체성을 구성할 수 없으면 행위의 주체 또한 없다. 이는 권력이 생산적이라는 입장인 것이고, 생산되는 권력 안에 주체가 자리하고

있으니 전복과 저항 또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의 ‘나’는 어머니를 비롯해 주변 여성들의 수행 양상을 보면서 자신은 담론과 권력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반복과 인용을 수행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 선택의 결과는 「바람의 녀」의 ‘은수’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쟁과 함께 유년을 보낸 여성은 당대의 맥락이 호명하는 수행 주체로 구성되었으나, 트라우마적 기억이 발현되고 비극적 최후를 맞았던 정체성들이 무의식으로부터 떠오르면서 주입된 모성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구토’를 하고 ‘초조’를 시작한 ‘나’가 수행의 주체로서 권력에 저항하고자 한다면, 권력의 내부로부터 전복과 위치 변경을 꾀해야 한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된 ‘나’는 권력의 가운데에서 성적 굴복이라는 예측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롭게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체자가 된다. 이때의 주체자는 기억의 회복과 아름다운 집에 걸맞은 어머니라는 수행을 모두 자발적으로 내러놓으며 체제로부터의 저항적 면모를 보이는 주체자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중국인 거리에서 해인초의 냄새를 실어 나르던 바람은, 훗날 ‘은수’에게로 당도하면서 그녀를 아름다운 집으로부터 내몰며 권력의 바깥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오정희, 『幼年の 뜰』, 文學과 知性社, 1981.  
 \_\_\_\_\_, 『바람의 넋』, 文學과 知性社, 1986.

### 2. 단행본

- 박찬호, 『한국의 가족과 여성혐오, 1950~2020』, 책과함께, 2020.  
 사라 러덕, 이해정 옮김,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 현실사, 2002.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오정희, 『내 마음의 무늬』, 황금부엉이, 2006.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_\_\_\_\_, 강경덕·김세서리아 옮김, 『권력의 정신적 삶』, 그린비, 201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대 정치철학의 네 가지 흐름』, 에디투스, 2019.

### 3. 논문

- 권명아, 「모성신화의 기원, 그 파시즘적 형식에 관하여-전후 경험과 모성신화의 형성 과정 연구」, 『원우론집』 30,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37~60쪽.  
 김미영, 「오정희의 『바람의 넋』 다시 읽기」, 『한국문예비평연구』 5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205~230쪽.  
 김영미·김은하,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탐구」, 『오늘의 문예비평』, 1991년 가을호, 68~82쪽.  
 김영애, 「오정희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성장소설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367~394쪽.  
 김현숙, 「한국 여성 소설문학과 모성」, 『여성학논집』 14-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8, 9~38쪽.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8, 대중서사학회, 2007, 387~416쪽.  
 나병철, 「여성 성장소설과 아버지의 부재」,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83~214쪽.  
 문 화, 「전쟁의 시공간에서 형성된 여성 정체성의 불연속성 - 오정희의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6, 현대소설학회, 2019, 175~204쪽.  
 박지혜, 「오정희 <바람의 넋>을 통해 보는 부부갈등과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투사 문제-문학치료학과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67, 한국문학치료학회, 2023, 303~340쪽.  
 성민엽, 「존재의 심연에의 응시」, 『바람의 넋』, 文學과 知性社, 1986, 277~286쪽.  
 심진경, 「오정희 초기 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한국문학과 모성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태학사, 1998.  
 \_\_\_\_\_, 「여성의 성장과 근대성의 상징적 형식: 오정희의 유년기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 한국어성문학학회, 1999, 185~205쪽.  
 \_\_\_\_\_, 「전쟁과 여성 섹슈얼리티」, 『현대소설연구』 3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55~77쪽.  
 \_\_\_\_\_, 「원초적 장면과 여성적 글쓰기의 기원: 오정희의 『바람의 넋』 재론」, 『인문학논총』 37,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20쪽.

-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14, 고려사학회, 2003, 251~278쪽.
- 정재림, 「기억의 회복과 여성 정체성」,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2005, 379~399쪽.
- 조주영, 「주체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6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73~96쪽.
- 주지영, 「말의 수행 양상을 통해 본 피난민 가족의 몰락과 저항의 가능성-오정희의 「유년의 뜰」-」, 『현대소설연구』 73, 현대소설학회, 2019, 179~225쪽.
- 허 윤,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2016, 79~115쪽.

## The Performance of Maternal Identity in Oh Jung-hee's Novel

- Focusing on 「A garden in one's childhood」, 「Chinese Streets」,  
「The soul of the Wind」 -

Park, Jiyeo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performance of maternal identity in Oh Jung-hee's War Trilogy. Each piece tells the story of a war situation, a post-war situation, and a character suffering from the memories of war. In particular, the artist carefully depicts the process by which 'women' become aware of themselves as historical and social beings through the intense experience and memory of war. We utilized Judith Butler's theory of performativity to understand how women's identities are structured differently throughout history. In particular, we focused on the variable construction of women's gendered identities, especially motherhood, and asked how this identity is performed in the context of war and motherhood.

When the particularities and conventions of war collide, repetition can be endlessly reproduced by citing the past, which is explored in 「A garden in one's childhood」. We will also analyze the ways in which motherhood is mobilized and performed in the new ideology of a war-torn country through 「Chinese Streets」, and unravel the ways in which sexuality is constructed and controlled in 1980s society through 「The soul of the Wind」, in which a female character, traumatized by the inescapable memory of war, navigates her way through society. Through this, I summarize why Oh Jung hee's maternal

---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Education Innovations instructor

performance can be read simultaneously as an opposition to dominant power and a co-opting of dominant discourse through Butler's account of agency. The reason why it is meaningful for a female character who suffered from the violence of war to be converted from a practitioner to a subject is because it shows the possibility that women themselves seek to resist and overthrow institutions and power, even if they are in the process.

**Key words:** Oh Jung-hee, motherhood, war, Judith Butler, performativity, productive power, melancholia, agency